

石像은 右手에 寶珠를 左手에 花枝를 잡고 있으며 左像亦 두 손에 무엇인지 들고 있으나 確實히 알아볼 수 없다. 上體는 裸形이며 두 팔을 거켜 밀으므로 흘러내린 天衣는 앞에서 X形으로 交替되었다. 本尊 左右로 脇侍像과의 사이에 蓮莖이 솟고 끝

에는 蓮蕾가 달려 있다. 이 三尊像 左右에는 各 四行씩의 碑文이 있는데 高二·五cm 行間約 같다. 爲先判讀한 碑文은 다음과 같다.

歲在癸酉年四月十五日
 彌及諸佛菩薩像造
 右記 是者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

(以上 向右侧)

造之 香徒名 弥次乃圓

牟氏 誓不啻 貳使舍

宣 誓不啻 貳使舍

前 面의 三尊像과 碑文을 除外한 全面과 左右 側面 背面에는 蓮座에

小如來坐像이 數百軀 陽刻되었다. 前面은 九段에 各段 二十二佛이며 兩側面은 十四段에 各段 七佛이고 背面은 十六段에 各段 二十一佛이다.

多少磨損은 되었으나 優雅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.

蓋石은 上下 二段의 長方形이고 碑身에 맞도록 밑에 홈이 파져 있고 下段周圍로 帳幕이 늘어졌다. 長廣은 下層이 三三×六四cm이며 上層이 二一×四六cm에 高가 一八·五cm이다. 右半이 破損된 것은 碑身右下端과 臺座右端의 缺落과 더불어 이 碑像의 홈이라 하겠다. 頂部에는 아무 裝置도 없으며 上下 二段의 四面에 各一段과 屋裏에 二段의 小佛像이 碑身에서와 같은 手法로 陽刻되었다.

如斯한 碑像은 碑岩寺所藏 癸酉銘 全氏 阿彌陀佛 三尊石像 ①에서 보았을 뿐 그 보다도 크며 四面에 寸隙을 남기지 않고 小佛像을 配置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보는 稀貴한 일이다. 이 碑像에서 特히 注目되는 點은 碑文에 보이는 「癸酉年」의 年代이니 碑岩寺藏 癸酉年 石像과 그 彫刻 手法이 共通되는 點으로 보아 同代의 造成으로 생각되며 新羅統一 直後 百濟遺民의 솜씨로 推測된다. 다음은 「眞牟氏」의 姓氏이니 우리나라 記錄에서 처음 나타나는 바로 百濟八大姓의 하나인 「眞」氏는 實은 日本側 記錄 ②에도 보이는 眞牟(慕)氏라는 것을 實物로서 보여준 매우 貴重한 金石이라 하겠다.

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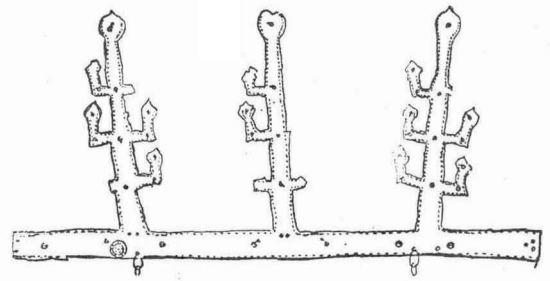
① 本誌 第一卷 第四號 黃壽永 「碑岩寺所藏」의 新羅銘石像

② 李弘植 「百濟人名考」 (서울大學校論文集) 第一輯 一九五四年三月 (追記) 本碑像은 直後 國寶로서 假指定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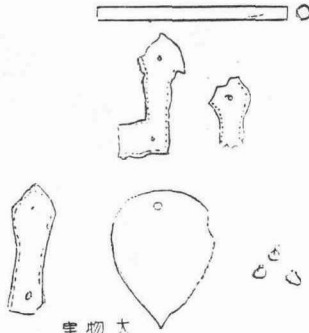
善山出土의 金銅冠

黃 壽 永

一九六〇年十一月 大邱에서 上京한 金銅冠一個를 調査한 바 있었다. 出土地는 慶北 善山郡 海平面 洛山里 所在 新羅石塔 後山의 古墳이라고 하는 바 俗稱 八萬大將軍基라고 일컫는 古塚에서 一九五七, 八年頃 夏季에 發見되었다고 한다. 一 括遺物로서는 長劍 二銅鐔 若干 土器(鈴形其他)等이라고 하는 바 모두 散逸되었고 그中 劍類는 서울 李某氏의 所藏



(1) 善山出土 金銅冠(S=1:3) (鄭明鎬製圖)



(2) 金銅管과 大環珞片과 殘片 (實物大)

이 되었다고 한다. 이 金銅冠은 出土 直後 大邱市의 古物商을 거쳐 個人의 所藏이라고 한다.

小形冠으로서 臺輪의 直徑 一三cm에 不過하다. 臺輪上緣 三處 (前面과 兩側面)에 三本の 出字形 同高(一七·五cm)의 立枝가 裝飾되었는바 (正面直 立 左右斜立) 各枝마다 對生의 三小枝 가 있어 尖端은 모두 寶珠形을 이루 었고 그 大小寶珠形의 中央과 分枝의 派出 및 屈曲點과 臺輪의 中心線上에 는 圓形突起를 打出하여 環珞片을 銅線으로 連結하였다. 또 臺輪上下緣과 立枝形의 周緣을 따라 點線紋이 둘러 있는데 立枝形은 雙釘으로 臺輪에 固 定되어 있다.

다음에 左右 立枝下部의 臺輪에는 圓環 各一을 連結하여 있고 (이 圓環 에는 小環하나가 各各 달려있다) 그 옆 에는 形(點孔) 小圓板 (向左一個 殘存)이 結付되어 있는바 後者는 冠 兩側의 垂下飾을 위한 裝具로 보인다. 前者 即 左右의 圓環에는 半圓形의

긴 銅線一條가 連結되어 있는데 作된다. 이같은 推定은 五個의 曲合된 金銅圓管長 四·一—四·四cm 徑 〇·三—〇·四cm과 一枚의 大金銅環珞片 (長 三·三cm)이 一括出土되었 기 때문인데 이 環珞片은 冠帶 中央部에 垂飾되었던 것으로 보인다. 冠 全體에 靑綠銹가 보이며 鍍金도 곳곳에 殘存하는바 그 樣式은 慶南北에 서의 既出의 遺例와 同系이나 小形品으로 略化되었고 技工이나 裝飾手

法 또한 더욱 粗略하나 出土地가 거의 確實함과 金銅管狀冠帶의 形式은 注目할만 하다. 三國時代 新羅의 地方有力者의 古墳出土品으로 보이는 이 金銅小冠은 앞으로 他一括遺品과 같이 收拾되어야 할 것인바 保存 은 良好하나 立枝形一部와 環珞小片은 거의 缺落되었다.

楚亭 「送萬德歸濟州詩有小序」

李 謙 魯

正宗 十八、九兩년에 濟州道에는 連이어 大凶이 들어 貧民들은 餓死 之境에 이르렀다. 이 때에 金萬德(金海人)이라는 女人이 巨財를 던져 糧 穀을 사드려 數千生 命을 救濟하였다.

島民들의 稱誦이 藉 함은 勿論이려니 와 牧使 李禹鉉이 朝 廷에 奏達하였더니 正宗께서 嘉尙히 여 겨 그의 所願을 下 向하시매 萬德이「妾 은 別다른 所願은 없 아음고 다만 聖上께 서 계신 漢陽과 天 下의 名山인 金剛山 求景이 所願이로소 이다」하였다. 牧使 가 이 말을 上奏하였 더니 正宗께서 萬德

